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2월(제6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우스키 식문화 발전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우스키시

지난달 8일, 우스키(臼杵)시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가입으로 우스키시는 일본 국내에서 야마가타(山形)현 쓰루오카(鶴岡)시에 이어 두 번째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이자, 세계에서 49개 뿐인 음식 창의도시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스키시는 앞으로도 수수하고 검소함을 느낄 수 있는 시의 향토요리를 보존하고 발효 산업, 양조업, 유기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육성함과 더불어 수원함양림 조성, 로컬 푸드 소비 등도 더욱 장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연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산업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신규 선정 도시 목록(음식 분야)

연번	도시	국가
1	보이콩	베냉
2	부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
3	화이안	중국
4	케르만샤	이란
5	쿠칭	말레이시아
6	랜캐란	아제르바이잔
7	론서스톤	호주
8	펫차부리	태국
9	루앙	프랑스
10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11	산타마리아 다 페이라	포르투갈
12	테살로니키	그리스
13	우스키	일본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우스키’
로고 마크 (※공모로 선정, 총 110건 접수)

벳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창업 이야기

ONE BEPPU DREAM AWARD 벳푸시



벳푸(別府)시에서는 매년 ‘벳푸’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ONE BEPPU DREAM AWARD’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기업은 참가자에게 인적 자원 및 비즈니스 모델 브러시업 지원 등의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된 이 콘테스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 10대에서 70대에 걸친 다양한 연령대의 대학생 및 경영자 54명이 지원했으며, 수차례의 브러시업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10명의 파이널리스트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12일, 기지마 고원(城島高原) 호텔에서 열린 제 3회 콘테스트에서 열정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여 62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 수와 매칭 성공 사례 199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기록을 훨씬 넘기며 대성공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벳푸시는 앞으로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사업가들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콘테스트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가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벳푸시 문화국제과 0977-21-1131(일본어))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2월(제6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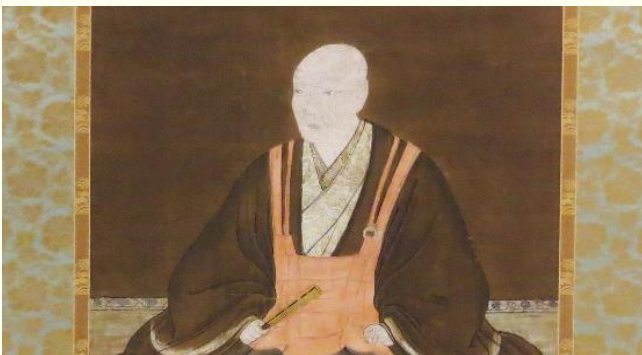
오이타의 역사 : 기독교와 남방 문화 이야기

🔥 오토모 소린 시대 - 기독교편 오이타시

오이타 역 맞은 편에 가면 한 남자가 손에 칼자루를 쥐고 능름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오토모 소린(大友宗麟)', 과거 오이타에 서양의 문화를 꽃피게 한 주인공이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이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이 남자가 어떠한 경위로 오이타에 서양의 문화를 꽃피게 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오이타현의 모습은 어땠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한다.

더불어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보기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오이타 현립 미술관(OPAM)에서 열렸던 전시회 '도요노쿠니, 온고지신(豊の国・温故知新)'과 소린 시대 인물들의 동상이 설치되어있는 유후 공원(遊歩公園)에 다녀왔다. 이 기사에 실려있는 사진은 위 두 장소에서 촬영하였다.

Part 01 소린과 하비에르의 만남



오토모 소린 초상화 (복제, 쓰쿠미시 소장)

때는 1543년, 당시 '분고국(豊後国)'라 불리던 오이타현은 오토모씨(大友氏)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토모 가문의 제21대 당주였던 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은 유년 시절, 인생을 크게 뒤바꿀 경험을 했다. 소린이 만 15세였던 시절, 분고 항구에 포르투갈인을 태운 중국의 배가 들어오며 분고국과 포르투갈은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들어온 서양의 문화, 기술, 처음 보는 먹거리는 소년 소린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고, 이를 계기로 소린은 외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550년, 만 20세의 나이로 당주가 된 소린은 이듬해에 일본 야마구치에서 활동하고 있던 스페인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분고국으로 초대하게 된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초상화 (복제, 쓰쿠미시 소장)

일본과 인도 등 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주역으로 알려진 스페인 태생의 가톨릭 사제이자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 1542년부터 인도 고아주에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던 그는 일본에 선교를 하기로 다짐한 후 1549년 당시 사쓰마국(薩摩国)이었던 가고시마에 폭풍우를 뚫고 상륙했다. 가고시마를 비롯해 야마구치 등 일본 전국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는 1551년 9월, 소린의 초대를 받고 분고국으로 향한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과의 무역을 염원하던 소린은 '포르투갈 선박과의 무역'을, 전도를 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하비에르는 '기독교 선교 활동의 허가'를 바랐는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분고국에는 새로운 문화가 꽃피게 되었다.

하비에르는 소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고국이 본격적으로 포르투갈과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는 그해 11월, 스페인에서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신부 '코스메 드 토레스(Cosme de Torres)'에게 일본 선교 활동을 맡기고 다시 인도를 향해 떠나갔다. 비록 약 2개월 남짓의 매우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비에르가 소린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컸고 그 영향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2월(제6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Part 02 분고국에서 꽃핀 남방 문화



서양 의학 발상 기념비 (유호 공원 위치)
수술을 집도하는 알메이다의 모습(중앙)

하비에르가 떠나간 뒤에도 소린이 선교 활동을 전폭적으로 허가한 덕분에 많은 선교사들이 분고국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555년에는 포르투갈 출신 상인이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루이스 데 알메이다(Luis de Almeida)'가 분고국에 와 사유 재산을 털어 고아원을 세움과 동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고, 일본 최초로 서양식 외과 수술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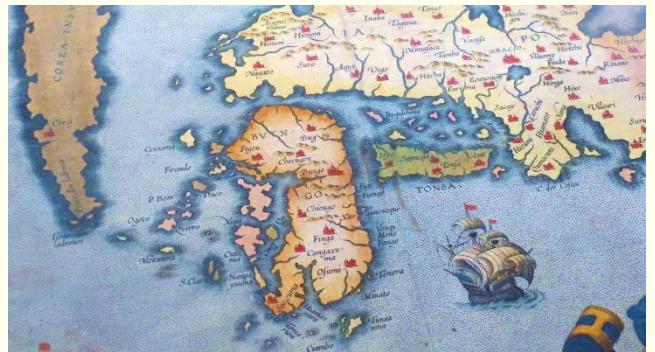


서양 음악 발상 기념비 (유호 공원 위치)
비올라 연주에 맞추어 일본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

1557년에는 분고국 후나이(府内) 소재 교회에서 일본 최초로 성가대를 결성하여 오르간과 비올라 연주에 맞추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1560년에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일본인 신도들이 성경 이야기에 일본풍 노래를 더해 '솔로몬의 재판을 원하는 두 명의 부인' 등의 내용으로 연극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일본 최초의 자원봉사 활동 단체 '미제리코르디아' 조직, 고등신학교 '콜레지오' 일본 최초 교회 인근 개설 등 다양한 서양의 문화가 '최초'의 타이틀로 분고국에서 꽃피었다. 이러한 서양의 문화를 일본에서는 '남방 문화(南蛮文化, 서양 및 유럽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하는데, 특히 분고국의 후나이에서 이 문화가 발달하고 동양의 문화와 잘 융화되어 국제 무역 도시로서 번영하였다.

Part 03 무역을 넘어 기독교 당주로



테이세라 일본 지도 (쓰쿠미시 소장)

소린은 포르투갈 이외에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외 각국의 상인들이 줄지어 분고국을 찾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테이세라 일본 지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지도상의 규슈 지방 상단에 크게 'BVNGO(분고)'라고 쓰여 있는 점에서 멀리 유럽에도 당시의 분고국이 기독교 선교 및 남방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한 해외 교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는 소린을 '일본에서 가장 총명한 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소린은 1578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신했는데, 하비에르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자신의 세례명을 '돈 프란시스코'라고 지었다. 또한, 1582년에는 자신과 규슈의 다른 당주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조카 손주를 포함한 4명의 소년을 유럽에 사절단으로 보내는 등 문화 전파와 함께한 다양한 선교 활동을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2월(제6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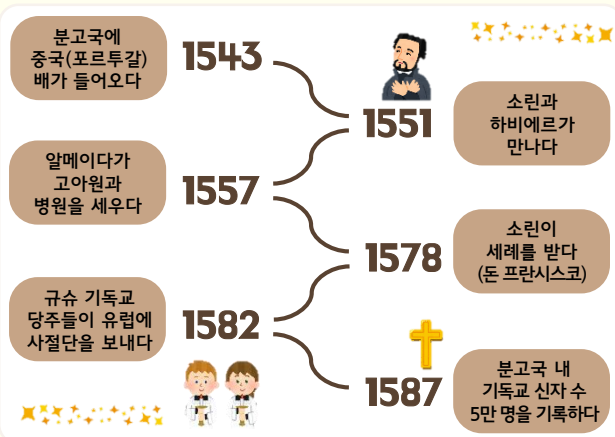
지원했고, 그 결과 분고국의 기독교 신자가 급증하여 1587년에는 ‘일본 전국의 기독교 신자 20만 명 중 약 5만 명이 분고국에 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마키에 라텐 카쇼 마도에 상자 (쓰쿠미시 소장)
남방, 네덜란드 양식으로 장식한 일본 전통 공예품 칠기

소린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하비에르와의 짧은 만남은 그의 인생과 분고국, 그리고 현재의 오이타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낸 과거 분고국처럼 오이타는 지금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조금이라도 오이타의 역사를 알고 방문한다면 분명 더 많은 것들이 보이리라 생각하여 작성한 이번 기사가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무리 한 눈에 보는 소린 시대 (기독교)



추천 전시 차군예찬(此君礼贊) : 오이타 대나무 이야기

이번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다녀온 전시회 ‘도요노 쿠니, 온고지신(豊の国・温故知新)’는 ‘차군예찬(此君礼贊) : 오이타 대나무 이야기’라는 주제의 오이타 죽공예품 특별 전시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노 도쿠조(生野徳三)’ 작가의 백죽(白竹, 껍질을 벗긴 대나무) 공예품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진 죽공예품은 매우 아름다웠다. 오이타현의 대표 공예품인 만큼 오이타 현립 미술관(OPAM)에서는 죽공예를 테마로 전시회가 자주 열린다 관심 있는 독자는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전시실 전경 (입구)



다양한 형태의 죽공예품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 (pu-no314@pref.oita.jp)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2월(제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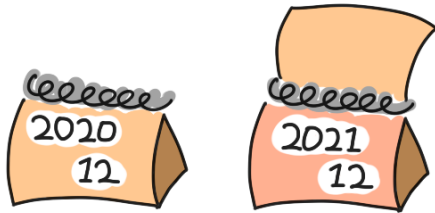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11화

오이타에 온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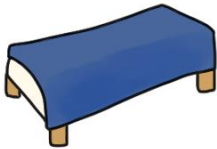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혼자 살아본 적은 있었지만
이곳은 일본이고 첫 해외생활이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할게 많았고
혼자서 잘할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다.

가구 조립도 혼자서



장보기도 혼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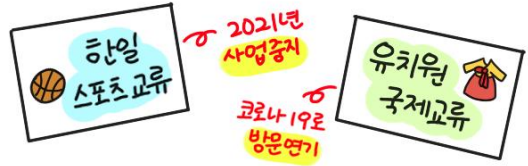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식 등
생활 면에서 여러 제한이 생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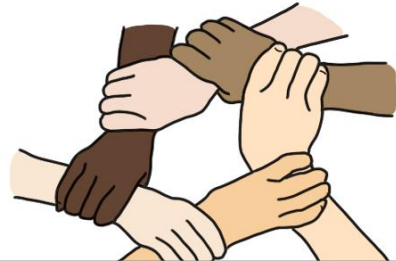
입이 있으면
아무말이나 해봐



매년 해오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자 이대로 괜찮나,하고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내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른 사람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힘들겠다며 나의 시적을 도와준 이들,



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준 이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2월(제66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11화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친구가 되어준 이들과,



나의 모국 한국이 좋다며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과까지.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나의 오이타에서의 1년은
외롭지 않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만나
더 많은 경험을 할수있길 바라며,



2021년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노지의 활약,
많이 지켜봐주세요!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